opusdei.org

#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20-4-19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20,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

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묵상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알려진 부활 제2주일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 날을 함께 기억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글은 매우 명료합니다.

이보다 더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토마스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직접 사하여 줄 때만 믿을 것 입니다.

성인들은 고해성사를 매우 자주 보러 갑니다. 많은 성인들은 적어도 매주 고해성사를 보러 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죄인이며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러 갑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소죄들을 포함하여 죄를 지우길 원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체스터튼은 왜 가톨릭 신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재판소[고해성사]에서 위안을 찾으라고 영혼들에게 말하여라. 이 기적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대리자[사제]의 발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에게 비천함을 드러내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썩은 시체와 같이 되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잃어버린 [희망]이 없는 영혼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성한 자비의 기적은 영혼이 가득 채워지도록 회복시켜 시켜준다.

오,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자들. 이 얼마나 불쌍한가!”**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제가 ‘자비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화해의 성사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4weol-28il-buhwal-je2juil-haneunimyi-jabi-juil/ (2025-12-15)